

## 제8회 세계기독교학회 한국대회 논문 공모

### 세계 기독교 내 번역 가능성, 매체 횡단성, 자국어화

**핵심어:** 번역; 다언어적 기독교; 매개; \*매체 횡단성(transmediality) 및 상호매체성; 언어 및 언어적 실천; 이동성과 순환성; \*초국어화(Translanguaging); 자국어화(토착어화); 상호기호(매체)적 번역

제8회 세계기독교학회는 종교적 전통이 뿌리내리는 데 있어 번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조명하고자, 관련 분야 및 제반 학제의 모든 연구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본 학회는 번역을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다양한 언어와 매체, 기호의 형태를 아우르는 '역동적이고 역사적인 매개적 실천'으로 접근하는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번역이 종교적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성해 왔으며, 종교적 전통의 자기 이해와 표현 방식이 번역을 통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심도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의 기저에는 종교적 실천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지, 나아가 그러한 번역 과정이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핵심적인 물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번역이 단순한 메시지 전달 수단을 넘어, 종교적 표현이 성립하는 조건 자체를 새롭게 빚어내는 실천적 행위라면, 과연 종교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에 본 대회는 광의의 차원에서 '번역된 교리 문헌(sacred texts)'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에 주목합니다. 여기에는 구전 발화에서 문자 기록으로, 필사본에서 인쇄물로, 종이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건축 양식에서 성미술(sacred art) 오브제로 전환되는 과정은 물론, 텍스트·이미지·소리·몸짓이 한데 융합되는 상호기호적(intersemiotic) 교리 문헌의 표현 양식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아울러, 시간, 인간, 사물(텍스트와 관념 포함) 및 언어에 대한 인식과 상상적 표상이 전통, 공동체, 인식론, 매체 생태계 간의 경계를 생성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 탐구하는 논문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은 경계의 구획과 횡단, 즉 차별화된 관계 맺기가 동시에 발현되는 '생산적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본 대회는 사람, 텍스트, 소리, \*연행(performance), 물질적 형태의 이동(혹은 의도적 멈춤)이 종교적 세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고찰합니다. 특히 이러한 순환의 궤적이 새로운 인식론적 지형과 미학적 실천을 어떻게 파생시키는지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초국어화(Translanguaging), 자국어화(토착어화), 매체 횡단성(transmediality) 및 상호매체성, 상호기호적 번역과 같은 개념들은 종교적 표현 양식을 재고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론적 통찰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 대회에서는 세계기독교 연구 분야를 형성해 온 번역의 핵심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연구를 특별히 환영합니다. Lamin Sanneh의 토착어화(vernacularization) 이론과 Andrew Walls의 '번역 원리(Translation Principle)'와 같은 기념비적인 이론들은 기독교가 어떻게 언어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종교적 만남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왔으며, 본 대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확장하고 새롭게 질문하는 연구를 기대합니다. 번역, 매개 (mediation), 물질성(materiality), 이동성(mobility), 기호학(semiotics)에 대한 동시대의 접근은 종교적 변화(religious transformation)를 사유하는 데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번역을 단순한 언어적 전이(language transfer)를 넘어선 현상으로 이해할 때, 어떤 새로운 개념적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 논의를 새로운 연구 지평으로 확장하고, 종교 연구와 세계기독교 연구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논문들을 기대합니다.

본 대회는 발화와 텍스트, 연행(performance)과 물질문화를 넘나드는 번역을 탐구하며, 이러한 번역적 실천이 교류망을 어떻게 재편하고 종교적 주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빚어 내는지 주목하는 논문을 환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이 더 넓은 종교적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고찰하는 연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번역학, 종교학, 인류학, 역사학, 문학·매체학, 신학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적 학제 간 연구를 특별히 장려합니다.

- 종교적 매개와 변형, 그리고 인신론적 실천으로서의 번역
- 종교 공동체 내 다언어 현상과 초국어화(Translanguaging)
- 종교 텍스트 및 실천에 나타난 상호기호적 번역과 상호매체성
- 자국어화(토착어화), 선교, 그리고 언어적 위계의 정치학
- 상호 구성적 실천으로서의 주석, 강해, 그리고 번역
- 종교 텍스트, 오브제, 매체의 이동성과 물질성
- 구전 전통, 연행(performance), 그리고 종교적 지식의 매체 횡단성(transmediality) 전승
- 디지털 매체와 경전성(sacred textuality)의 재구성
- 언어와 권력, 그리고 번역의 윤리
- 종교적 맥락에서의 오역, 불분명성, 그리고 번역 불가능성
- 순환과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단위의 종교 교류

역) \* 매체 횡단성: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강조할 때 사용.

\* 초국어화: 언어학에서 하나의 담론에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것.

\* 연행: 구비문학과 전통 예술에서는 '말로 전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 자체를 의미

- [https://ptsem.formstack.com/forms/world\\_christianity\\_conference\\_2027](https://ptsem.formstack.com/forms/world_christianity_conference_2027)
- 마감일: 2026년 9월 15일
- 합격자 발표일: 2026년 10월 15일

학회 위원회: Afe Adogame, Raimundo Barreto, 정수진, 박사론, 이창호, 남성현 교수